



‘Vietnam & Cambodia’ 를 다녀왔습니다

권춘수 경상북도수의사회장

살다보면 지난날들의 흔적들을 되새기고 싶은 심경이 가끔 일어난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다.

늦은 가을 저녁노을에 내 마음 그곳에 던져버리고 꿈속에서 행복한 삶을 그려보면서 후회 없는 그날의 흔적들을 나열해 보고 싶어 잡기장에 글을 심어본다.

* 2006년 11월 10일 (금)

마음 한 구석에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인천국제 공항에서 19:40분 OZ 733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vietnam으로 출발하였다.

비행도중 기내 석식하고 나서 잠시 6일간의 여

행계획을 세워보았다. 여기에서 베트남까지 비행 시간은 4시간 30분인데 5시간 걸리는 것 같다.

한국시간으로 밤 12시 30분에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현지시각 10:30분 한국시간 보다 2시간 늦음) 고달픈 몸이지만 베트남은 낯 설은 지명도 아니고 또한 궁금한 나라도 아니다.

비행기가 Hanoi 공항에 서서히 착륙한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일행들을 기다리는 안내원이 반가이 맞으면서 우리들을 안내한다.

우리들이 숙박할 Hotel까지 가는 도중 부지런히 베트남에 대한 설명을 한다.

베트남은 인구가 54부족에 1억이며 하노이는 정치도시이고 현재 APEC 개최 준비관계로 교통

이 매우 혼잡하다. 베트남에 정식 한국인 가이드는 3명뿐이다.

하노이 공항에서 하노이 시까지는 30Km. 경제성장률25%. 석유생산량이 최고이며 커피, 철강,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다. 베트남은 한국과 같이 충·효 사상으로 무장된 국가이어서 한국풍속도와 비슷하다.

현지시각으로 밤 12:25분경 호텔에 도착하고 여정을 풀고 휴식을 취하였다. (현지시각으로 표시함)

* 11월 11일 (토)

05:30분에 일어나 호텔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거리는 너무나 조용하며 띄엄띄엄 줄서있는 가로등은 외로이 오가는 행인들을 찾으며 밤새움하고 있다.

이곳 새벽하늘은 희멀건 한 열은 안개로 가득하고 시가지는 열은 안개로 자욱하여 새벽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것 같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조용한 평화로운 아침인 것 같다.

6:30분 morning call에 기상하고 하루일정에 따라 준비를 한다. 나에게는 이날은 더없는 소중한 날이다. 정말 소중했던 날이었다.

맑은 아침 기분 좋은 상태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Halong bay로 출발하기위하여 우리일행들은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한 회원이 Room bar를 사용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와서 호텔직원이 나와 버스 안에서 계산을 하는 진풍경도 볼만하였다.

호텔 앞에 게양한 각 나라 국기 중에 한국국기도 나란히 게양되어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모습 국위선양,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느껴본다.

아침식사 흥분한 휴식이라 일행들은 한결 기분이 좋은 것 같다. Halong bay에서 항구도시 하이퐁(인구400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건축양식은 아직 舊時代의이다.

한국의 70년대 초반이다. 1~2천년 전쟁 중에도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는 배워야할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농경지는 경지정리 작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대로 바둑판처럼 되어있다. 이곳에는 먼지가 많아 오토바이 자전거 탈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 소달구지 말 달구지가 가끔 지나간다.

자동차 전용차도에서도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다니는 풍경이 정겹게 보인다. 자전거 부대가 이동할 때에는 물결처럼 흘러간다.

이발소는 60년 초 한국에서처럼 거리에서 그대로 이발을 하고 있다. 옛 한국의 풍경을 그려본다.

묘지는 논바닥 가운데 붉은 벽돌로 집을 지어 그곳에서 3년간 안장하였다가 3년 후 화장해서 다시 안장하는 묘지문화도 특이하다.

넓은 들판에는 농로가 없고 농기계란 한대도 볼 수 없다. 이곳에는 힘든 일은 여자가 다한다. 청소부는 일반 노임보다 10~20배 이상 높다.

고갈모양의 모자는 고난의 상징이다. 이 모자는 여자만 착용한다. 이는 급할 때에 밥그릇으로 물그릇으로 세면기 포탄 나무는 도구 등으로 여러가지로 활용한다.

길거리 옆에 서있는 가옥들은 일반가정 집이면서 모두 상가들이 줄로 서있다. 들판에는 옥수수가 대부분이면서도 양파농사도 빼 놓을 수 없다.

1973년 7월 미군철수, 호치명(vietnam창설자) 1969년 9월 2일 79살로 사망. 이곳 농경 법은 한국의 옛 농경시대 그대로다.

1975년 해방, 1950~1977년까지 자유 월남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았다(안남미). 베트남 식사는 하루에 5끼씩 먹는다. 안남미 쌀은 소화가 잘 된다.

베트남 사람들의 성품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구걸하는 사람 거리에서 볼 수없다. 1989년 전쟁이 끝났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 기계화가 발달되지 못한 이유이기도하다.

가옥모양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직사각형으로 건축되어있는데 이는 주택 세금 때문이다.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면에 접한 부분은 적고 반면에 도로 아닌 반대편으로 쑥 들어가서 건축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건축하는 것이다.(프랑스 식)

집 입구는 좁지만 안쪽은 넓은 편이다. 이곳 교육제도는 6, 7, 8월 무더위에 방학하며 교육열의는 한국과 똑 같다. 과외 열기는 대단하다, 유치원도 또한 대단하다.

여성의 날엔 꽃 들고 가지 않으면 남편은 쫓겨날 정도로 여성의 날은 대단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학입학과 졸업은 매우 어려우며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군대에 가지 않으며 전쟁이 나면 소위로 임명하고 철저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제도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인맥을 중요시하는 정치이지만 베트남은 두뇌정치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곳 하노이 종합대학교는 세계 100대학에 들어가며 영국 하버드대학에서는 편입을 허용한다.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손 제주가 특히 좋다.

1909년 한자를 폐지하고 지금 한자를 해독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

피부건조 방지를 위하여 어항을 방에 두고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Halong bay산세는 한국 산세와 비슷하고 잡목 속에 자란 소나무는 은시원 샴시 소나무와 비슷하다.

베트남에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유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직업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공장이 곧 들어오고 LG 공장은 한국에서 보다 더 큰 공장들이 와있다.

이제 국경이 없어진다. Halong bay에서 배를 이용하여 깊은 곳에 가는 도중 선상 횃집 배 바로 옆에 따라붙으며 과일을 파는 모습들은 온 집안 식구들이 힘을 합하여 삶의 투쟁이라 할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Halong bay 가는 선상 위의 바람은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댄다. 물은 석회석이 많아 부영고 배들은 수 십 척이 넘으며 이렇게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 같다. 큰 배 적은 배를 가진 자, 배를 보아도 곧장 알아볼 수 있다.

시계는 흐릿하여 먼 곳을 뚜렷이 볼 수 없다.

선상에서 싱싱한 회가 올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서 잠시 환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즐겼다.

선상에서 본 하늘, 구름, 바위, 나무들은 모두 한국과 똑같다. 바다는 온통 햇빛으로 가득하고 선상에 따라온 베트남 사진 기자는 연신 사진 한 장 찍기를 청하면서 우리들에게 추파를 던진다.

Halong bay 해수욕장은 조금 한산한 편이다. 선상 꼭대기에 기대앉아 잠시 새 삶을 찾아 나서는 낯선 사람의 한 형편을 생각한다.

바람은 훈훈 날씨는 금방 비가 올 듯하다.

해수욕객들 중에 젊은이는 연시 바다에 뛰어 들어 가는데 머리카락이 백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나는 소비자 그대는 생산자 이는 삶의 법칙이다.

Halong bay는 3000여개의 주변 섬들과 석회 동굴 등 천연요색 지역이다.

오늘은 괜히 이러한 절정을 나 혼자 보기가 싫어진다. 기쁘면 우울해 진다드니 이런 것 두고 하는 말인가 싶다.

지금 이 순간만큼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다. 바위 물 나무 이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곳에서 그대를 생각하면서 사색을 즐긴다.

Halong bay를 뒤로하고 우리들은 숙소로 돌아왔다. 선상에서 술이 만취되어 허느적 거리는 모습 보기가 그러네요.

그러나 숨김없이 나타나는 그대의 모습 우리들도 그대로다. Halong bay 빠져나오는 동안 배의 속도는 한가롭다.

지금 16시 20분 우리들 배 주위에는 약 40~50대의 배들이 보금자리에 웅기중기 모여 있다.

* 11월 12일 (일)

아침 식사 후 Hanoi로 갔다. 바닷가엔 아침 일찍 사랑을 속삭이는 여인들도 눈에 띄고 한쪽에는 이런 아침부터 삶의 투쟁 속에서 하루의 생활이 시작된다.

자전거 오토바이 뒤범벅되어 행인들과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서있다.

도로변에 줄지어있는 가게들은 6. 25동란 직후 우리들의 생활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건데 이곳에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시간들을 접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건축자재며 TV, 냉장고 등이 넘쳐흐른다.

시가지에 들어오니 생활력이 넘쳐흐른다.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엄청나게 돌아간다.

이곳 베트남은 정말 개발도상국가로서 손색없는 것 같이 보인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속임없이 사는 나라. 일 하는 만큼 얻는 나라 이러한 원초적인 기초 바탕위에 우뚝 선 국가로서 용처림 승천하려고 움틀 거리는 이 순간들은 어느 누구도 탐내지 않을 수 없다.

가도 가도 끝없는 광활한 평야, 바다 산맥에서 쏟아져 나오는 천연자원은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해준다.

쌀 석유등의 대표적인 자원은 더욱 부강해주는 원천이기도하다.

광림에는 반달곰이 12000두 정도 있으며 6개월

에 한번씩 담즙(웅담) 50~60cc를 채취한다.

웅담은 11월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W. T. O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반달곰을 기르다가 적당한 시간에 Halong Village에 갖고 와서 적당한 양의 담즙을 채취하고 있다.

웅담은 내성이 없으며 피를 맑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버드 대학 상위권은 베트남 학생이고 다음은 인도학생이며 졸업 후 어디로 진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로 돌아가서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 하고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미국 VISA발급을 받기위하여 베트남 사람들이 햇볕이 내려 쬐는 돌담 벽에 줄지어 서있는 것을 보고 이를 격분한 베트남 인들이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 Air condition을 철거해 버렸다.

미국 영사관에서는 하는 수 없이 책상과 Air condition을 설치해주고 베트남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이는 곧 베트남인들의 자존심이라는 안내원의 서슴없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인 것같이 보이며 베트남은 차츰 변화가 되는 것 같다.

관혼상제는 한국과 동일하며 여기와 마찬가지로 왼팔에 완장을 두른 사람은 상주이고 허리에 띠를 두른 사람은 백관이며 장례일자는 3일장으로 한다. 3년간 묘에 안장시켰다가 화장해서 재를 모시는 풍속이 있다.

북부지방은 2모작과 밭 농작물도 하나 남부지방은 3모작만 한다. 쌀이 둥근 것은 수분이 많기 때문이고 또 굵다. 찰 찐 쌀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 잘 안되어 위장병이 대체적으로 많으며 특히 한

국, 일본, 중국등지 에는 위장병이 많이 나온다.

아열대 지방이라 무덥다고 생각 했던 것 보다 훨씬 선선하다. 복장 들은 모두 짧은 T 차림, 반바지, 슬리퍼 등등 이지만 실상 이곳 사람들은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햇볕에 노출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곳 부모님들도 애들에 대한 사랑은 옛날과 전혀 다르다.

옛날 같았으면 무더운 날씨를 자연적으로 이기도록 그냥 두었는데 지금은 선풍기, 에어컨을 켜주면서 애들을 돌보는 현상인데 이래서 이곳 애들도 참을성이 적어지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경기부양에 따른 부모님들의 애정이 서서히 들어나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어느 휴게소에서 자연산 Noni액을 2병 샀는데 wife가 어떻게 생각할는지 걱정스럽다. 해외 나가서는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절대 명령이니까!

날씨가 안개처럼 뿌옇다. 이는 태풍이 들어온다는 소식이다. 태풍이 불어와도 심하지 않아 피해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집 지붕들이 허술하다.

도로공사가 한창이다. 도로공사에 필요한 것은 돌인데 모래가 많아 모래를 사용하는 기초 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들판에는 소들이 한가롭게 벼를 베고 난 벼 집을 뜯어먹는 모습 자연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 1억이란 엄청난 인구를 가진 베트남 수도 하노이(매립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경제성장이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되는 느낌이 든다.

시가지에는 자전거, 오토바이로 뒤범벅되고 의복도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퇴근시간이라 물밀 듯

이 흐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탈바꿈하는 과도기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종교는 유교이면서 불교 또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도시 한 가운데 1천년 넘는 사원(鎭口寺)를 둘러보고 놀랐다. 사원을 관광하고 소형차로 하노이 공항으로 이동하고 Cambodia Siem Reap 공항으로 갈 준비를 했다.

우리들이 가는 비행기가 3시간 연착하여 21:30분에 Cambodia로 출발하였다.

하노이에서 캄보디아 까지 비행시간은 1시간 40분이다. 우리들은 22:40분경에 Cambodia Siem 공항에 도착하고 현지 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서 숙소인 Angkor Hotel로 간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60년~70년 초기와 같은 상황이며 국호를 6번 바뀐 국가이고 1994년 전쟁을 종식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한 국가이다.

첫술하고 난 다음 생수로 행구어야한다. 힌두교를 먼저 받아드린 국가이다. 하루 인건비는 남자는 3달러 여자는 2달러 힌두교와 불교(대승)가 1세기 동안 정착했다. 여정을 풀고 취침에 들어갔다.

*** 11월 13일 (월)**

호텔 조식 후 크메르제국의 최대 유적지인 앙크로 톰 관람할 계획으로 출발하였다.

오늘의 일정은 남문, 바푸온 사원, 코끼리 테라스, 타프놈 사원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아코르와

를 관람하고 프놈바켕 일몰을 감상할 계획이다. 우리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여 제일먼저 관람한 곳은 남문이었다. 남문의 입구에 도착하자 안내원은 설명을 시작한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석상들을 만져본다. 남문의 입구에는 惡神과 善神으로 된 石像이 무지개다리 양편에 서있고 그 밑에는 9개의 머리로 된 뱀이 버티고 있다. 뱀은 부처를 보호한다고 믿고 있다.

성벽의 높이는 8m이며 성안에는 사원들이 많이 있다.

인도철학은 힌두이며 1400~1500년전 불교로 파급되었으며 불교는 대승불교를 정착시켰으며 이는 1세기 동안 이루어졌다.

벽에 그린 벽화를 浮彫라 부르며 달마는 질서, 의리의 기분을 두고 있다.

앙크로와트는 힌두와 불교가 접목되어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역사구에 기록되어있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원에는 浮彫들로 기록 보존되어 삶의 풍속도를 읽을 수 있다.

힌두교는 소이외의 양, 염소, 닭 등의 고기는 먹는다.

시바의 신이 타고 다니는 짐승은 쥐이며 힌두의 신이 타고 다니는 새는 봉황새이다. 시바의 신은 파괴의 신이며 창조도 신이다.

남문을 지나 보행으로 바푸온 사원을 관람하였다. 바푸온 사원 사방은 부처를 보호한다는 뱀의 조각으로 되어있다.

사원 입구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석상들은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조각한 것이다.

바꾸은 사원을 지나 아쿠원 사원을 관람하였다. 이 사원은 10세기에 준공한 것으로 신바의 신에 주기 위하여 만든 사원으로 왕은 뱀과 먼저 잠을 자고 그 후에 왕비와 함께 잠을 자야 하는 하늘 위의 궁전이라 했다.

크메르가 힌두교를 태국에 전달하게 된 것은 태국과 전쟁당시 크메르 군사들이 체포되었을 때 억울함을 벽화에 새겨 힌두교를 전달하게 되었다.

아쿠와 사원을 지나 타프놈 사원으로 왔다. 이 사원은 자야바르 7세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사원이다.

따끼오 사원은 중국 침입으로 인하여 미완성이며 이 사원은 자연과 인간관계를 그린 사원이다. 인간은 자연을 극복할 수 없다. Cambodia 국기에 서 붉은 바탕은 피, 청색은 왕실을 의미한다.

양크로왓 건설기간은 37년간 정도, 프놈바켕 일몰은 날씨가 흐린 탓으로 장관을 이루지 못 하였다.

- 죽여라 마구 죽여라,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으며 죽은 자는 산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
- 땅은 엄마와 같고 바다는 아버지와 같다.
- 이를 부조에 옮겨놓아 오늘 날까지 원형 그대로 전달하게 되었다.

浮彫는 법과 질서와 규범을 지키기 위하여 벽에 각인한 것이다.

*** 11월 14일 (일)**

아침 08:00시경에 톨레 샵 수상가옥을 관광하

였다.

우리들이 톨레 샵으로 가는 길 양편에는 오른편은 부자가옥 왼편에는 빈촌인데 빈촌에는 나누어 먹는 분위기 이고 부자가옥에는 사람이 사는 풍경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한산하다.

캄보디아에는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없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은 하노이 베트남계이고 또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도박하는데 다 써버린다.

Siem Reap 자연호수는 정말 장관이다. 호수위에는 100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학교, 주유소, 성당, 식당, 돼지 울 등 육지와 똑 같다.

이곳 주민들은 어자원이 풍부하여 새우, 민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 호수는 히말라야 산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 내려오는 우기에는 물이 불어서 2km까지 갯벌을 침수한다.

캄보디아는 국력이 약하여 Siem Reap강을 막아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데 강을 막으면 베트남에서 필요한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베트남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힘에 의하여 캄보디아에서는 강물을 막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전력을 받아쓰는 형편이다.

국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iem Reap호수 안에 있는 거대한 선상위에 민물새우와 음료수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다.

선상위에 천주교회를 설립하여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속으로 감사드린다.

호수위에 떠있는 수목들은 너무나 울창하여 육지와 착각할 정도로 울창하다. 수상가옥에서 천진난만하게 물 깊이가 4~5m되는 물속에서 옷을 입은 채로 풍덩 뛰어들고 하며 노는 모습 50년대 우리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듯 하다.

수상에는 활짝 핀 노랑꽃, 덩불모양, 엉클린 칠푼굴, 이름모른 나무들이 뽀뽀이 서있어 육지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이다.

배가 지나가는 양쪽에는 꽃과 나무들이 웅장하게 버티어서있는 가운데 엔진 소리를 연내 뿜으면서 내달리는 나룻배 한척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순간들이다.

아~목은 찌꺼기가 씻어버리고 새롭고 희망찬 생각을 갖고 이 곳을 지나가고 있다.

수상가옥 삶은 인생의 맛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태어나서 일어 설 줄만 알면 손님들에게 1달라 달라고 손을 내민다고 하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자선이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내가 서글프다.

수상거리 이발소 요금은 900원이고 미장원은 그런대로 되는 것 같다.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다.

호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탁 할 적에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캄보디아 평균수명은 56~57살이고 문맹 인이 많아 글씨보다 그림으로 된 간판들이 눈에 많이 뜨인다.

Siem Reap호수관광을 마치고 바라호수로 갔다.

호수깊이는 60m. 길이 8km, 폭2.2km, 수문1개.

이곳 행상인들은 물건하나 팔기위하여 목이 터지라 왜치는 철부지한 삶의 투쟁구호(?) 사모님! 사랑해요 하는 목소리가 내 귓전을 울리고 있다.

캄보디아 농촌 가옥에는 큰 웅덩이가 집집마다 있는데 이는 날씨가 더워 사람, 오리, 소 순서로 웅덩이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있다.

- 내가 차지하는 것만 내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것도 내 것이다.
- 내가 한 모든 권리들을 국민들이 알아주면 고맙겠다. 이는 캄보디아 선조들이 베트남에 넘겨 준 땅을 되찾기 위하여 공산당을 쳐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말이다.
- 호치명은 베트남전쟁 중 고엽제로 모든 나무들은 죽고 풀만 남아있어 산을 비옥하기위하여 인분이나 가축배설물을 아무데나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산림녹화에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들은 여기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현지 시간 16:50분 Vietnam Hanoi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2시간가량 늦게 도착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돌아왔다

*** 11월 15일 (월)**

05:30분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고 긴 여행을 마쳤다.

피로 속에도 숨겨온 보물들을 보여드리고 싶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